

“5월 광주, ‘철가방’의 웃음과 눈물로 풀어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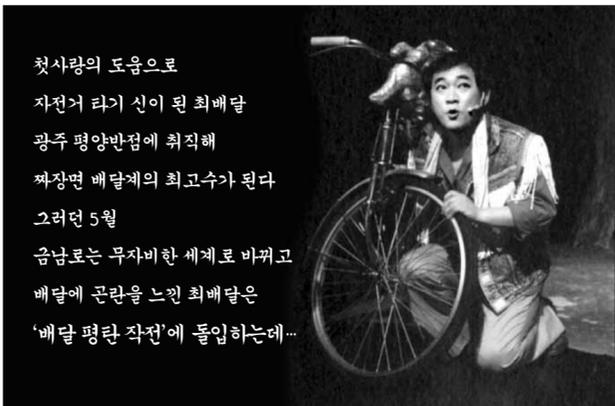
최용석 1인 판소리극 ‘배달의 신이 된 사나이’ 28일 광주교대서 무료 공연

“철가방 하나에 짜장면 여섯 그릇, 철가방 여섯 개니 육육에 삼삼육, 짜장 골든타입에 짜장면 서른 여섯 그릇을 한변에 척척 배달해내는 나는야 배달의 신 최배달!”
오월 광주를 소재로 한 1인 창작 판소리극 ‘방탄 철가방-배달의 신이 된 사나이’가 광주 공연을 갖는다. 28일 오후 7시30분 광주교대 풍향문화관.

지난 8월 서울 국립극장에서 초연됐던 ‘방탄 철가방’은 최배달이 1980년 광주 금남로 평양반점에 취직하고 겪게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5월 이야기를 무거움과 어둠 대신, 웃음과 눈물로 바꾸려 했다. 무대에 서는 소리꾼은 ‘판소리 공장 바닷소리’ 최용석(41) 대표. 목포가 고향인 최씨는 흥일고 시절부터 소리를 배웠다. 중앙대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한 후 성우양명창 등을 사사한 정통 소리꾼인 그는 국가 지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다.

“판소리가 그 자체로 예술로서 가치가 높고 좋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통 판소리 공부에 꾸준히 해오면서 소재와 형식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다. 창작 판소리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싶었다.”

지난 2002년 창단한 바닷소리는 현재, 우리의 이야기를 그린 창작 판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조류독감에 걸린 닭들을 통해 평화, 환경, 통일에 대해 이야기한 ‘닭들의 꿈’은 창작국악극대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나귀 이야기’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사크라뮤지카 페스티벌에 초청



첫사랑의 도움으로
자전거 라기 신이 된 최배달
광주 평양반점에 취직해
짜장면 배달계의 최고수가 된다
그러던 5월
금남로는 무자비한 세계로 바뀌고
배달에 곤란을 느낀 최배달은
‘배달 평란 작전’에 돌입하는데...

됐고, ‘스마트 폭탄가’는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작품이다. 최씨는 또 팟 캐스트 ‘나는 쫄수다’에서 시사 판소리를 꾸준히 해왔다. 1인 판소리 ‘취왕의 몰락기’는 전국 공연을 다니기도 했다.

그런 그가 5월을 소재로 한 이번 작품의 대본을 쓰고 소리를 썼다.

“목포가 고향이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5·18에 대한 이야기를 이곳 저곳에서 많이 들었었다. 시민군들이 목포로 버스 타고 온 모습을 본 기억도 있다. 소리를 공부 하면서 많이 들었던 게 임진택 선생의 창작 판소리 ‘오월 광주’였다. 나도 창작판 소리를 하게 되면 꼭 광주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번 작품은 기존의 1인 판소리와는 좀 다른 형태다. 고수와 둘이 무대에 서는 대신 북 반주와 함께 장고, 베이스 기타가 어우러진다. 공연에서는 베이스 기타의 양영호씨와 타악연주자 이준형씨가 라이브 연주를 들려준다.

음악은 국립창극단의 ‘메디아’ 등을 작곡한 황호준씨가 맡았다. 소설가 황석영씨의 아들인 황씨는 어린 시절 광주 운암동 집에서 ‘남을 위한 행진곡’을 녹음하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5월 광주를 소재로 다루는 것은 예술가들에게 큰 부담이다. 최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애를 썼다. 광주

의 비극, 마음들은 중심에 두되 광주 이야기를 부담없이 볼 수 있게 구성했다. 또 한가지는 영웅의 이야기 보다 모두가 함께 겪어냈던 삶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평범했던 우리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버린 모습들을 그린 작품이다.”

첫사랑 애경이 첫 배달법을 알려줘 자전거 타는 솜씨가 신의 경지에 이른 최배달. 평양반점에 취직한 그는 출중한 자전거 실력으로 짜장면 배달계의 최고 고수가 된다. 그러던 5월, 평화로운 금남로는 무자비한 세계로 바뀌고 배달에 곤란을 느낀 최배달은 ‘배달로 평란 작전’에 돌입한다.

“타 지역에서 광주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우려했었다. 광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짓눌리지 않았으면 싶었다. 서울 공연을 관람한 이들에게 오월 광주는 거의 생소하게 처음 맛보드리려는 일이다.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나도 겪을법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너무 무겁지 않게 만들려 했다. 관객들이 주로 많이 웃고, 훌쩍훌쩍 울더라. 광주를 다시 생각하겠다는 말에 뿌듯함도 느꼈다. 광주 공연은 무척 부담된다.(웃음) 너무 가볍게 다뤘다고 욕 먹는다고 하는 거 아닌가하는 걱정도 있다. 광주 반응이 제일 궁금하다.”

최씨는 내년에는 5·18 즈음에 광주에서 공연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와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교류 사업 작품으로 국악그룹 아이리아가 함께 주관했다. 무료 공연. 감동 후불제. 문의 070-8654-30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재즈협회 올 마지막 정기연주회

28일 콘텐츠산업지원센터

지역에서 활동하는 재즈 뮤지션들이 한국재즈협회 광주지회(회장 최기철)를 설립한 게 지난 2011년이었다.

단체 설립 후 회원들은 4년 동안 14번의 공연을 갖는 등 재즈 대중화에 힘을 쏟았다. 올해 마지막 공연이 28일 오후 7시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옛 KBS)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광주 뮤지션 뿐 아니라 서울 등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도 함께 호흡을 맞춘다.

눈길을 끄는 팀은 대구예술대 겸임 교수인 방병조씨가 이끄는 재즈 기타리스트 방병조 그룹이다. 방씨와 함께 야누스 상임멤버인 드럼 주자 유영수, 노스 네덜란드 음대에서 수학한 베이스리스트 이철훈,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원 등에서 공부한 피아니스트 이윤선이 함께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술과 장미의 나날들’, ‘러브스토리’ 등이다. 또 트럼펫 연주자 최선배, 보컬리스트 박라은이 멋진 무대를 선사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밴드 ‘올댓재즈’(베이스 최기철·드럼 오태승·기타 최창렬·색소폰 류상화)와 호신대 교수 박수용(색소폰), 재즈 보컬리스트 장소영, 황태룡, 이애자, 그룹 아따 등도 출연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Someday my prince will come’, ‘Higher ground’, ‘Oleo’,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어느새’, ‘정선 아리랑’, ‘벚노래’ 등이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10-7767-999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명량’ 김한민 감독 올해의 최우수예술가상 광주시향 이현경, 심사위원 선정 예술가상



김한민



이현경

영화 ‘명량’의 김한민 감독이 제34회 ‘올해의 최우수예술가상’을 받았다. 순천 출신으로 ‘극락도 살인 사건’, ‘최종병기 활’ 등을 만든 김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명량’은 관객 1760만 명을 동원하며 한국 영화 흥행사를 다시 썼다.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상에는 김 감독 이외에도 음악 부문의 작곡가 양방언씨 등 모두 8명이 선정됐다.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상은 예술종합평론가 단체인 한국 예술평론가협의회(회장 장석용)가 1980년 이후 해마다 심사를 통해 각 장르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예술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그밖에 협회가 중견 예술인들에게 수여하는 ‘심사위원 선정 특별 예술가상’은 음악 분야의 이현경(광주시립교향악단 플루트 수석)씨 등 모두 8명이 수상했다. 파리 에콜 에콜 노르말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이씨는 에콜 드 플루트 앙상블을 이끌고 있다. 시상식은 12월 3일 오후 6시30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만화 ‘미생’ 200만 부 판매 돌파

올해 최고 판매량 기록



동명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만화 ‘미생’이 지난 25일 200만 부(날권 기준) 판매를 돌파했다.

앞서 만화 ‘미생’은 지난달 26일 100만 부 판매를 돌파했으며, 불과 한달 만에 200만 고지를 넘어섰다. 위즈덤하우스는 “올해 최고 판매량을 기록한 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9월 단행본으로 발간되기 시작해 2013년 10월 9권으로 완간된 윤태호 작가의 ‘미생’은 지난 10월 초까지 90만부가 판매됐다.

위즈덤하우스는 “기존에는 30~40대 남성이 주 독자층이었다면 방송 이후에는 20대와 40~50대의 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여성독자의 비율도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매력이 있는

직장인들이 주 타깃이라 소장용과 연말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됐다”고 말했다. 위즈덤하우스는 ‘미생’ 200만부 돌파 기념으로 오는 28일부터 ‘미생’ 특별보급 판을 제작해 판매할 예정이다. 윤태호 작가의 친필사인도 함께 주요 등장인물 캐릭터 책갈피 6종 세트가 부록으로 수록된다.

연합뉴스

